

편집자의 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이번 『러시아연구』 제27권 제2호는 이 세계사적 대혁명의 의미와 명암을 훑아보는 특집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게재된 논문 여덟 편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혁명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네 편이고 일반 논문이 네 편이다. 애초에 혁명특집을 기획할 때 편집진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다소 조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추정컨대,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의 러시아 관련 연구자들이 크고 작은 러시아혁명 100주년 기념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지만 학회 개최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었기에 학술지 투고를 위한 최종정리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2018년에 올해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 혁명 관련 논문들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게으른 변명이 되지 않기 위해 편집진도 분발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에 게재된 러시아 혁명 관련 논문들은 혁명기 러시아제국 변방의 정치적 동향, 혁명기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미학이론, 문학속에서 반추되는 혁명의 진실과 소비에트적 삶 등을 다룬다. 비교적 익숙한 주제도 있고 한국 학계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주는 글도 있다.

강윤희의 글 「러시아 제국 주변부에서의 혁명: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와 단명한 아르메니아공화국」은 러시아제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가는 시기, 복잡다단한 민족문제의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다. 외교학 전공자이면서 역사학적 연구도 병행해 온 필자가 이번에도 역사 속으로 그의 시선을 옮겨왔다. 글은 혁명 이전 시기 동서 아르메니아에서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삶, 오스만 투르크에서 일어난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비록 터키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용어를 거부하고 있지만), 1917년 이후 아르메니아에서 쫓기듯 진행된 독립공화국 수립과 그 좌절, 소비에트 체제로의 편입 등의 과정을 순서대로 개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기에 필자가 연구의 출발을 고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르메니아어와 러시아어로 된 사료를 활용하지 못한 것도 예열 단계 작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한다.

변현태는 「유물론적 미학을 향하여: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진화」에서 발터

벤야민의 미학이론을 통해 혁명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전화(轉化)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개념이 시기적,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 상징주의, 러시아 모더니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구별하여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러시아 아방가르드이게끔 만드는 종별성을 밝혀내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변현태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다양한 흐름을 묶는 틀로 ‘형식적 방법’을 내세우고 그 미학은 “파괴된 결합과 파열의 미학”이었다고 보는 우샤킨의 규정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아방가르드 세대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미학에 의해 형성된 세대인데, 이러한 “파괴된 결합과 파열의 미학”은 버먼이 말하는 “저개발의 모더니즘”, “러시아적 현대성 체험”에 근거를 둔다. 그렇다면 뷔르거가 『아방가르드의 이론』에서 제시했던 바, 예술제도의 변혁은 필연적으로 삶의 혁명화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 변현태는 발터 벤야민의 유물론 미학을 검토하고 그의 미학이론과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접목지점을 찾는다. 특히 벤야민의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언급된 공산주의에서의 ‘예술의 정치화’라는 구절을 소환하며 이 예술의 정체야말로 러시아 아방가르드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방가르드의 해방적 활력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봉쇄당했던 시기에,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기획을 급진적 정치와 결합함으로써 ‘구제’하고자 쓴 글”이 「기술적 복제가 가능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라는 것이다.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정치와 예술의 결합은 예술에 대한 아방가르드의 새로운 관념의 결과라고 그는 보고 있다. 또한 변현태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은 료타르가 말하는 송고의 미학을 넘어, ‘송고에서 정치로’ 전화하였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변현태는 정치에 대한 랑시에르의 규정인 ‘감지가능한 것의 분배’라는 개념으로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글은 다소 우회적인 경로를 거쳐서라도 혁명기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정치의 관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자 하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서선정은 그가 오래 거닐었던 고대 루스의 아스라한 지평에서 발걸음을 크게 옮겨 이번에는 러시아 혁명과 20세기 중반의 소련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혁명이 개개인에게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구체적 삶을 위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졌나’라는 고전적인 물음을 살펴보기 위해 그가 선택한 텍스트는 소련 작가 유리 트리포노프의 소설 『노인』이다. 노년세대에 이른 20세기 후반의 소련 남자 파벨이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1917년 혁명을

되돌아보는 이 소설을 길잡이 삼아 필자는 혁명의 진실과 인간의 실존을 바라본다. 솔로호프가 남부초원을 무대로 장대하게 펼쳐냈고 파스테르나크가 유럽 러시아와 시베리아를 오가며 그려냈듯, 『노인』에서도 혁명적 격변 속 인간의 삶은 동요와 고통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을 낳는다. 적어도 트리포노프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보다. 『노인』의 주인공 파벨이 기억을 복원해가며 꼼꼼히 모은 자료들을 젊은 역사학자를 위해 남겨주기 때문이다. 트리포노프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기억이 상이하다는 사실에서 보듯 복원된 인간의 기억들이 상호충돌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종합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역사연구를 통해 진실과 실체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역사적 진실은 실재하며, 인간이 남긴 기록물로서의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재구성하면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소련 시기 역사학의 인식론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서선정의 글 「혁명의 진실과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다: 유리 트리포노프의 『노인』」을 읽으면서 아연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잡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 혁명의 진실을 밝혀내는 과제를 떠맡은 역사연구자들이다.

한국의 연구자와 독자들은 알렉시예비치를 사랑한다. 심지어 이 대열에 합류하여 「붉은 인간」의 전쟁: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 5부작과 러시아혁명」을 기고하였다. 필자는 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 5부작 분석을 통해 러시아 혁명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5부작은 러시아 혁명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시기의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다. 심지어는 러시아 혁명으로 형성된 인간형이 ‘붉은 인간’, 곧 호모 소비에트쿠스라고 규정하고, 이 호모 소비에트쿠스가 전쟁과 재난, 국가의 해체 속에서 겪는 고통을 목소리 소설이라는 형태로 들여보는 것이 알렉시예비치의 소설이라고 파악한다. 심지어에 따르면 알렉시예비치는 남성중심의 전쟁 서사 속에서 망각되었던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집요하게 불러낸다. 그리고 약자의 고통을 초래할 뿐인 모든 전쟁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소리를 드높인다. 이러한 분석에 충분히 동의하되, 알렉시예비치 작품을 분석하는 연구자와 평론가들이 전쟁과 재난 속 여성의 고통의 근원을 소비에트 체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은 분명히 소련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치독일이 일으킨 전쟁이어서 소련은 이에 대한 방어전

쟁을 수행한 것이었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핵발전소 참사는 공산주의 소련에서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참사라는 형태로 자본주의 일본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의 작품이 가진 보편성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일반논문들은 도스토옙스키, 21세기 중앙아시아의 급진 이슬람 운동, 동북아시아의 전력공동체 형성 가능성, 한러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태연의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비교연구」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결부된 민족별 지역편중 구도, 해당 국가 내 이슬람계 주민들의 체제접근성 약화, 이슬람근본주의 거부라는 명목을 내걸고 행해지는 정권담당자들의 특정 이슬람 주민(양국의 경우 모두 그 대상은 우즈베크계 주민들이다) 차별 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급진 이슬람 운동은 대단히 폭발성이 높은 연료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이슬람국가(ISIS) 세력이 시리아, 이라크 등 서남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로 동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들은 우선은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으나 차츰 구 소련권 중앙아시아로 그 세를 확산할 것 같다는 것이다. 김태연의 분석대로 중앙아시아 사회들에서 이미 자생적 급진 이슬람 운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외래 급진세력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중앙아시아가 서남아시아와 같은 양상의 급진 이슬람의 활동의 장이 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태연과 함께 21세기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의 향배를 숨죽여 주목해 본다.

1850년대 초 옴스크의 강제노동감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만난 민중은 그의 작품 속에서 그려진 민중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까. 지식인 저자가 자신이 만난 사람들 속에서 민중을 발견할 때 저자의 창조적 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신봉주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연구: 민중성의 원체험을 찾아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또 한 번의 지적 씨름을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자신의 인격(личность)을 완전히 지운 채” 민중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려고 했지만 읽는 사람은 이 텍스트를 저자 자신의 경험의 축자적 번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필자는 이 작품 전체에 저자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객관성의 환상을 재고하도록 촉

구한다. 필자는 도스토옙스키가 창조한 화자 고란치코프가 작품의 처음과 끝에서 이질적 형상을 보여준다는 점, 도스토옙스키가 편지에서 자신이 민중과의 거리를 끝내 좁힐 수 없었음을 고백했던 것 등을 지적하면서 이 수기 자체의 불안전함 및 한계를 의식케 한다. 다른 한편, 신봉주는 도스토옙스키가 민중과의 거리를 없애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지식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민중의 교양(грамотност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체험과 삶을 직접 말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독자로 하여금 망연함과 처연함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아쿨카의 남편의 이야기가 그 한 예이다. 전체적으로 신봉주는 『죽음의 집의 기록』이 저자의 쓰기 행위의 산물임을 보여주면서도 이 작품이 ‘민중적 원칙’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자 자신의 ‘그곳’의 경험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강조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전력(電力) 통합을 매개로 다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 같은 전력협력이 유럽통합의 출발점이 된 기구 가운데 하나였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윤성학의 논문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략 비교 연구」는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다자 간 혹은 양자 간 전력협력에 관한 구상을 살피고 이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전력연결 곧 슈퍼그리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제시한 Asia Super Grid안,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안, 러시아정부가 추진하는 Asian Energy Ring안 등 여러 구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필자 윤성학의 의견으로는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석유, 수력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동북아 여러 국가에 양자간 협력에 바탕을 두고 공급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구상이 타당성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슈퍼그리드 구상의 실현에 따라 남북러 협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력정책 자체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이견과 갈등 때문에 이 구상의 순조로운 실현을 당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력협력이 동북아 협력의 한 선례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19세기 후반부터 서로를 국제관계에서 의미 있는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후 굴곡 많은 관계를 거쳐 왔다. 근대화와 제국주의적 정책의 주체와 객체로서의 관계, 냉전기의 상호경원, 한러 재(再)수교 이

후의 우호협력관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대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태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물론 이러한 태도 혹은 인식은 양자 간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들 혹은 각자의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21세기 초, 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최우익의 글 「2016~17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한국 국민의 세대별 인식을 중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외국어대학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의 러시아여론조사센터(프치옴)와 공동으로 실시되었지만 이 논문은 한국 측 조사결과를 주로 분석하되 중요 항목에서는 러시아 측 조사결과도 비교 검토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의 조사결과를 볼 때 한국인은 러시아인을, 러시아인은 한국인을 특별히 호감과 신뢰가 간다기보다는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라고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양국의 구성원들은 상대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한국인이 러시아인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의 증가율은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한 비율의 증가율보다 낮다. “양국 국민은 상대를 긍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하는 편”이다. 논문필자에 따르면 이는 한반도 주변의 다른 국가들(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경계심과 불신이 강화된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가 높은 세대일수록(60대 이상) 러시아에 대해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리적 차원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야 한다고 여긴다.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20대) 러시아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관심이 적으며, 한·러 관계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국제관계적 과정 속에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우익은 이 같은 세대별 인식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함께 희망해 본다.

원래는 이번 호에도 서평과 서평논문을 게재한다는 것이 편집진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여러 경로로 몰아닥치는 논문생산 주문과 기타 학문적, 학문 외적 요구의 물결 속에서 서평과 서평논문을 쓸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충실한 작업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 편집진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러시아학 연구자들이 온갖 과제의 수행 요구 속에서 소진(burnout)에 이르지 않고 심신의 건강을 모두 유지하면서 학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사회적 과제이라 믿는다. 러시아혁명 100주년의 해가 독자들의 삶에서도 새로움을 더하는 한 해가 되었기를, 저무는 해의 마지막 걸음을 지켜보며 뒤늦게나마 빌어본다.

2017. 11. 25. 편집위원장 한정숙